

신행·나눔 통한 청년 불교 중심 40년

창립 40주년 맞은 삼광사 청년회 기념법회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 청년회(회장 홍정표)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7월 26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40주년 기념법회'를 가진 삼광사 청년회는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지 무원 스님은 격려사에서 "청년회의 신심이 40년이나 이어져 왔다. 덕분에 삼광사가 부산의 불교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청년회장과 회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청년회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무원 스님은 "오늘까지 걸은 발자취를 돌아보고 시대의 흐름과 문화에 맞춰 앞으로 청년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1974년 첫 창립법회 봉행

97년 청년회 산하 봉사단 조직 청년회 출신 '청고회' 발족도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삼광사 불사 당시 청년회의 원력은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청년회가 40주년의 경사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회원들의 선근 공덕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기념법회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청년회가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닦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춘광 스님은 "앞으로도 더욱더 훌륭한 공덕의 열매를 맺어 향기로운 연꽃을 피우기를 바란다"며 청년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했다.

정원성 청년회 교무부장은 발원문에서 "삼광사와 인연 맺은 청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육바라밀 수행 대자대비행을 펼쳐 봉사, 나눔의 기쁨, 감사의 정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수행문화를 꽃피워 청년회의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지혜의 광명을 비추 주시옵소서"라고 발원했다. 내빈의 축사 및 격려사 이후에는 삼광사의 발전에 기여한 청년회 회원 3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삼광사 청년회는 초대회장 김인



부산 천태종 삼광사 청년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7월 26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기념법회를 가졌다.

태 회장을 중심으로 1974년 7월 1일 첫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그 후 청년회는 월 2회씩 정기 법회를 봉행하며 수행에 정진했고 1977년에는 부산지역의 복지관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선행에 뛰어 들었다. 또한 1997년 이후에는 청년회 봉사단을 조직하여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 활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기도 했다. 이등회 전 청년회 회장(4·8대)은 "순수한 신심으로 한자리에 모여 법회를 가졌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 회원들 간 서로 독려해주고 이끌어주며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던 중 30여명이 입산하는 등 신심이 꽃 피던 시절이 있었다. 또한 30

여년 전의 끈끈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며 청년회 범우들 간의 두터운 우정을 자랑했다. 청년회의 이러한 역사와 정신은 최근 발족한 청고회(회장 이동희)로 이어지고 있다. 청고회는 과거 청년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회원 30여명이 모인 신행단체로 지난 6월 삼광사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청고회는 "사회 속에서 신심이 흐릿해지기 전 순수했던 신심을 되찾고 싶었다. 초발심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나아가고 사회적으로 회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청고회는 청년회 운영 및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봉사 통해 행복한 여름 방학을...

부산 맑고 향기롭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출범

(사)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이 '2014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출범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7월 28일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2014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출범식을 갖고 부산지역 내 학생 총 850여명의 자원봉사활동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출범식에서 서병수 부산광역시청의 축사를 대독한 이갑준 부산광역시 안전행정부장은 "98년부터 시작된 맑고 향기롭게의 나눔·실천의 교육의 장은 여러분을 행복과 사랑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또한 봉사활동 기간 동안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사)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2014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출범식에서 자원봉사 선서를 하고 있는 학생들.

로 돕고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전했다. 내빈들의 축사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와 의식을 다지는 선서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학생들은 7월 28일~31일 장애인 종합복지관, 양로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다양한 기관 내에서 지도교사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한다. 김나영 객원기자

한국남부발전 용호복지관에 후원물품 전달

소외이웃 위한 쌀 라면 지원... 어르신 식사 대접도

한국남부발전(주)(대표 이상호)이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에 5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7월 28일 김만년 한국남부발전 본부장 및 임직원 30여명은 용호종합복지관을 방문 라면 200박스, 쌀 200포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지역 어르신께 공양도 대접했다. 김만년 본부장은 "한국남부발전이 부산 남구 금융단지로 이전하게

됐다. 따라서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이웃이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기업으로써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남부발전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춘성 관장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나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다. 이렇게 선뜻 마음을 내주시는 한국남부발전 직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은 서울에서



한국남부발전이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로 이전하게 되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소외된 이웃 돌보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숲속 여름 불교학교서 불교 배웠죠"

은적사, 7월 24일~26일 찬불가 배우기, 참선 등

조계종9교구 말사 대구 은적사(주지 허주)가 7월 24일~26일 숲속여름불교학교 수련회를 열었다. 초등부 35명의 수련생들은 주지 허주 스님, 불교학교 교사들과 함께 입재식을 가졌다.



은적사가 7월 24일~26일 숲속여름불교학교 수련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수련생들은 "집에서나 학교에서 생활하던 그릇된 버릇을 고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법우들의 공동생활에 적극 따르며 스님의 가르침을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발원하는 선서로 수련을 시작했다. 주지 허주 스님은 "부처님 곁에서 수련을 통해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배워 큰 그릇이 되어 가자. 수련생들은 집을 잠시 떠나 가족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숲속여름불교학교는 찬불가 배우기, 참선, 숲길 걷기, 행복캠핑, 도전

골든벨을 올려라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수련 마지막날인 7월 26일에는 은적사 유치원으로 자리를 옮겨 부모님과 함께하는 수계식을 가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김나영 객원기자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복지학교 개강

늘기쁜마을(대표이사 지현) 산하 부산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이 2014 청소년복지학교를 개강했다.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청소년복지학교는 7월 28일~30일, 8월 4일~6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의 2014 청소년복지학교는 노인 및 장애인 체험활동, 노인인식개선 등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고령노인체험장비를 활용한 노인체험 활동은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경험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았다. 김나영 객원기자

"선수행 교육 분야에도 유용해"

동명대 세계선센터 교직원 대상 선수행 연수

부산교육연수원 지정 연수기관인 동명대 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가 교원들의 인성·창의교육 신장을 위한 '선 명상과 힐링' 연수를 진행했다.

8월 18일~22일까지 총 5일 동안 특수분야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선 명상과 힐링' 연수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수행 관련 인성·창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선의 이해와 치료, 108배 수행과 선, 심리학과 선 수행, 명상실습 등 이론과 실습이 적절하게 조화될 이 연수는 교원들에게 선 수행 지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심신 및 스트레



동명대 세계선센터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선수행 모습

스 완화에도 기여해 선 명상을 교육 분야에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한편 동명대 세계선센터는 지역 주민들과 재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좌선·행선 등 선 수행을 익힐 수 있는 '제2기 선 수행학교' 수강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051)629-3582 김나영 객원기자

안동보경사 수련회 '유식 20론' 집중 강좌

안동 보경사(주지 오경) 부설 정해학당이 경전 강의 2차 수련회를 8월 16~17일 보경사에서 개최한다.

'유식 20론'을 풀어내는 이번 강의는 오경 스님의 강의를 듣고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집중 강의로 구성되며 <유식불교, '유식이심론'을 읽다>(예문서원)를 교재로 한다.

정해학당은 "오경 스님의 철저한 강의 준비를 통해 깨부수기 어려운 잘못된 관념, 아집, 사교의 오류 등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며 사교의 틀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전환시키는 집중강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054)842-4080

성지순례는 '부여 미암사'

쌀바위, 진신사리, 세계최대와불, 산신각, 용왕당으로 오세요

(소원성취 하는 곳)

주소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미암길 128 전화 :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